

# 베트남전 한국군 민사작전과 해외파병 교훈

崔 容 鎬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베트남전쟁의 환경 및 특수성
3.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작전
4.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교훈적 요소
5. 결 론

## 1. 서 론

‘이라크 추가 파병(派兵)’ 관련 기사가 연일 언론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국군은 현재 시간(2003. 10. 1. 기준)에도 세계 11개 국, 15개 지역에 1,300여 명이 파병되어 활동하고 있다.<sup>1)</sup>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와 조선이 주변 강대국의 요청을 수용해 전투부대를 파병한 사례가 있

으며, 유사(有史) 이래 최대 규모였던 베트남 파병사례와 함께 소규모의 전투부대가 파병되었지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최근 귀국한 동티모르 파병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파병이 결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sup>2)</sup>

앞으로도 국군의 해외파병은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으로 인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 우리 민족이 생존과 안정,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국익증진의 차원에서 추진했던 파병사례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성찰(省察)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민사작전사례는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은 이전까지 경험했던 사례와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을 경험했다. 당시 베트남의 전투지역 대부분이 열대(熱帶)정글과 늪지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베트남 정부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베트공<sup>3)</sup>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파병된 한국군은 적과 아군이 뒤섞여 있는 특이한 형태의 전장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전술 역시 6·25전쟁시 경험했던 정규전(定規戰)위주의 전술로부터 비정규전(非定規戰) 상황하 대(對)게릴라 전술과 민사작전 및 심리전 등 ‘남베트남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해 지역을 평정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강구해야만 했다.

다행히 당시 주월 한국군사령관으로 임명된 채명신 장군은 6·25전쟁시

1) 국방홍보원, 「국방일보」, 2003. 10. 1, 6면.

2) 1999년 10월, 상륙수부대로 명명된 전투부대(대대급 규모) 제1진이 동티모르에 파병되어 신생 독립국 동티모르의 국경선 획정작업, 치안유지와 수해복구 등 민주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는데 기여하고, 2003년 10월 23일 제8진 249명이 귀국했다.; 「국방일보」, 2003. 10. 23~30 관련기사 참조.

3) 베트공(Viet Cong): 약칭으로 ‘VC’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지칭으로 ‘베트남공산주의자(越南共產黨: Viet Nam Cong San, Viet Nam Communist)’로 인식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1960년 12월 20일에 결성된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National Liberation Front)의 구성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군 유격대였던 ‘백골병단’을 지휘해 북한군 후방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의 특성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채장군은 “100명의 베트남공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지휘방침을 설정하고, 전 장병이 민사심리전 요원이 되어 현지 주민들과 적극적인 유대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sup>4)</sup>

그 결과 주월 한국군은 무력을 사용하는 수색정찰 및 매복, 소탕작전과 병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민사작전과 심리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남베트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남베트남 정부의 평정사업을 지원하고,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5)</sup>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검토되고 있는 이라크는 종전(終戰)이 선포되었지만, 연일 폭탄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베트남의 게릴라전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던 한국군의 작전 및 활동사례는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베트남전쟁의 환경 및 특수성을 기초로, 파병된 한국군의 민사작전이 베트남전쟁에 미친 영향 및 교훈을 분석함으로써, 이라크 추가 파병 등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국군의 해외파병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적 요소를 찾고자 한다.

## 2. 베트남전쟁의 환경 및 특수성

### (1) 베트남의 역사와 외세(外勢) 저항정신

베트남의 역사는 유사(有史) 이래 끊임없이 반복된 외국세력의 침입과

4) 채명신, 「베트남 전쟁의 특성과 연합작전」,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14~15.

5)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1』, 「남베트남 Phe Diem 총장 밤레오 증언록」, pp. 152~154.

지배에 대항해 이를 격퇴하거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저항의 역사였다. 이 같은 베트남인들의 저항정신은 최초의 고대국가인 반랑(Van Lang : BC690~275)과 어우락(Au Lac : BC 275~179)에 이어 수립된 남비엣(Nam Viet, 南越: BC 207~111)이 중국의 한(漢) 무제(武帝)에 의해 점령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남비엣을 멸망시킨 한은 관리(官吏)를 파견해 베트남의 북부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중앙 정치무대인 중원(中原)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일수록 자질이 부족한 관리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베트남을 다스리게 된 관리들 역시 탐관오리가 많아 수탈이 가혹했고, 베트남인들은 줄기차게 저항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쯡작(Trung Trac), 쯡니(Trung Nhi) 자매의 봉기(AD 40~43)와 리본(Ly Bon)의 봉기(541~547), 풍흥(Phung Hung)의 봉기(782~789)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베트남 대부분의 도시에는 ‘하이바쯡(Hai Ba Trung)’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가 있는데, 바로 ‘쯡 자매’를 기리는 지명이다.<sup>6)</sup>

독립을 위한 베트남인들의 줄기찬 저항은 중국 지배를 받았던 1,000년 내내 계속되었다. 그 같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베트남인들은 907년 중국에서 당나라가 멸망한 혼란기를 이용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938년, 응오꾸옌(Ngo Quyen)이 중국 점령군을 대파하고,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1,000년에 걸친 중국의 지배를 종식 시켰다.

그 후 베트남은 민족국가를 수립하고 독립을 유지하게 되었지만, 중국 왕조의 부침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베트남은 중국과 조공관계로 화친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그들의 가혹한 요구에 저항하는 투쟁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258년부터 1287년까지 원(元)의 3차례에 걸친 침략이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쩐(Tran, 陳) 왕조(1225~1400)

6)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도서출판 이산, 2002, pp. 34~54.

는 원의 항복요구를 거절하고 대항했다. 그리고 왕족(王族)이었던 쩌흥다오(Tran Hung Dao: 陳興道) 장군의 활약으로 3차례에 걸친 원의 침입을 물리치고,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원의 집요한 침략에 굴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했던 쩌흥다오는 천부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수도(首都)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적이 강할 때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도주하면서, 적을 괴롭히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반격을 감행하여 격파하는 게릴라 전법을 가장 잘 사용한 장군이었다.

그 결과 쩌흥다오는 소규모 병력으로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이끌어 내어,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오늘날까지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며,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의 지주로 추앙되고 있다.<sup>7)</sup>

그 후 1800년이 되면서, 응웬푹안(Nguyen Phuc Anh)은 프랑스 신부(神父) 아드란 주교로부터 400여 명의 용병을 지원 받아 자신의 군대와 함께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던 떠이선(Tay Son: 1771~1802)군을 격파하고, 응웬(Nguyen, 阮: 1802~1858) 왕조를 창건했다. 그리고 청(淸)국의 승인을 받아 ‘베트남(越南: Vietnam)’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sup>8)</sup>

7) 김종수, 「호찌민과 보웬지압의 전략전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전문화연구, pp. 6~8.

8) 당시 중국은 주변국에서 새로운 왕조가 건국될 경우 신왕조의 국호를 승인하여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관례가 있었다. 이 같은 관례에 따라 베트남을 통일한 응웬푹옥아인(Nguyen Phuc Anh)은 1803년, 자신의 왕국에 대한 국호를 ‘Nam Viet(南越)’로 제정해 당시의 청(淸)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은 ‘Nam Viet(南越)’이 BC111년 한무제에 의해 멸망된 과거의 왕국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Viet Nam(越南)’이라는 국명을 승인함으로써 오늘날의 ‘베트남’이라는 국명이 만들어졌다.

## (2) 제1~3차 베트남전쟁

### 1) 제1차 베트남전쟁(抗佛전쟁)

1498년, 바스코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항로 발견 이후 유럽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1540년 포르투갈을 선두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베트남에 진출했다. 이중 프랑스는 “가톨릭을 전파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신부(神父)들을 베트남에 진출시켰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베트남의 카톨릭 탄압을 빌미로 1862년 남부의 사이공을 점령하고, 사이공 조약을 체결했다. 베트남에서 프랑스 식민통치시대의 시작이었다.

이어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종주국 행세를 해오던 청(淸)과 무력대결도 불사하면서 지배지역을 확대했다. 그리고 1885년 6월, 청(淸)과 무력대결에서 프랑스가 승리함으로써, 텐진(天津)조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은 물론 캄보디아와 라오스까지 식민지로 삼았다.<sup>9)</sup>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의 지원을 받아 수립된 프랑스 비시(Vichy)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행동을 묵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0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주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행동의 자유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1945년 3월 9일, 프랑스군을 무장해제 시킨 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베트남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눈앞에 둔 연합국(聯合國)은 1945년 7월,

9) 오구라 사다오(박경희 옮김),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 도서출판 일빛, 1999, pp. 169~204.

포츠담회담에서 동남아시아 지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프랑스를 배제하고, 베트남 주둔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북위 16도선을 경계로 북부는 중국군이, 남부는 영국군이 점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베트남은 독일, 한국과 함께 타의에 의해 분단되었다.

이에 앞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베트남에도 새로운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프랑스에 강제 징집되어 유럽전선에서 싸운 후 되돌아왔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사회주의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또한 부유층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에 유학해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사상에 심취했는데, 호찌민(Ho Chi Minh, 원명 Nguyen Ai Quoc, 1890~1969)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호찌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시기를 이용해 베트남 공산당의 핵심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1년, 호찌민이 이끄는 베트남 공산당은 “모든 계층의 혁명세력을 결집해 프랑스 식민당국 및 일본군에 대항하는 독립투쟁을 전개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베트남 독립동맹, 즉 베트민(Viet Minh)을 결성했다. 이어서 베트민은 중국과 베트남 국경의 산악지대인 까오방(Cao Bang)과 랑선(Lang Son) 일대를 장악해 해방구(解放區)를 설치했다.

또한 호찌민은 1944년 12월, 34명으로 ‘베트남 해방군(解放軍) 선전대’를 창설하고, 베트남군의 모체로 삼았으며,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까지 중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베트남 북부의 6개 성(省)을 장악했다. 그리고 1945년 8월 3일부터 공산당 중앙위와 베트민 총회를 열어 “베트민 산하로 총력을 결집하여,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 각계 대표 60인으로 ‘인민의 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베트민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연합군이 진주하기 직전의 권력 공백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진입했으며, 8월 18일경까지 모든 공공기관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호찌민은 8월 29일 독립내각을 구성했으며, 9월 2일에는 하노이에서 50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 Nam)’ 수립을 선포했다.

그 결과 베트민은 북부지역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민은 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존의 종교단체와 독립단체 등 연합전선을 실행행사를 통해 물러나게 하고, 모든 행정기구를 장악했다. 이로써 베트민은 북베트남은 물론 남베트남 지역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sup>10)</sup>

한편 영국의 비호를 받고 있던 프랑스는 일본이 베트남에서 물러가자, 또 다시 동남아시아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베트남에 진주(進駐)하는 영국군 부대에 프랑스군 1개 중대를 포함시켰다.

그 후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식민체제를 재구축하기 위해 점령국인 영국 및 중국과 협상을 시도했으며, 1946년에는 양국 군대와 교대한 후 베트남 전역을 재점령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또다시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군의 베트남 점령으로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던 베트민과 충돌은 필연적이었으며, 두 세력은 마침내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때의 전쟁을 ‘제1차 베트남전쟁’이라고 부르며, 베트남인들은 ‘항불인민해방전쟁(抗佛人民解放戰爭)’이라고 부른다.<sup>11)</sup>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체제가 대립해 동서(東西) 냉전체제에 의한 갈등이 격화되면서 제1차 베트남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domino) 현상을 우려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1949년 10월, 중국의 공산화에 이어 1950년 6월,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체 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아울러 베트남에서 전투중인 프랑스에 36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도록 했다.

호찌민 세력의 저항에 직면한 프랑스는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최신장비

10) 유재현, 『월남전쟁』, 도서출판 한원, 1992, pp. 47~56.

11) 이기중(박사학위 논문), 『한국군 베트남 참전의 결정요인과 결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1, pp. 35~37.

로 무장된 강력한 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식민체제와 제국주의 정책은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빈약한 재래식 장비로 무장된 케릴라 수준의 호찌민 세력을 용이하게 제압할 수 없었다.

공방전을 거듭하던 프랑스는 결국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패배했다. 그리고 동년 7월 20일, 제네바에서 호찌민 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이때 체결된 평화협정의 내용은 “베트남을 북위 17도선을 따라 남·북으로 분할해, 북은 호찌민 정부가 통치하고, 남은 프랑스 식민체제를 유지하되, 2년 후인 1956년 7월까지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프랑스의 항복이었다. 이로써 1946년에 시작된 제1차 베트남전쟁은 1954년 호찌민 세력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12)</sup>

## 2) 제2차 베트남전쟁(抗美援朝)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심했던 1954년은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 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미 동유럽과 중국이 공산화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전쟁은 겨우 봉합되었다. 그러나 이념의 대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반도 적화에 실패한 공산주의 팽창의 기세가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베트남이 이념전쟁(理念戰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독립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냉전(冷戰)체제에 의한 이념 대립의 일환”이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후견국의 역할을 미국이 떠맡게 되었다.

이 같은 배경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된 남베트남의 젊은 지도자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은 1955년 10월 26일, 호찌민의 북베트

12) 나종삼, 『월남파병과 국가발전』, 국방군사연구소, 1996, pp. 22~40.

남에 대항하는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을 건국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새로운 남·북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미국이 베트남 사태에 개입하자, 호찌민은 강력히 반발했다. 그리고 1960년 12월 20일, 남부에서 결성된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과 함께 지엠(Diem) 정부의 전복을 시도함으로써, 제2차 베트남전쟁, 즉 항미(抗美)전쟁에 돌입했다.

남베트남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자,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군사고문단’에 이어 전투병력을 파병해,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그리고 우방국의 지원을 호소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2개의 전투사단을 파병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베트남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각종 정책들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실적위주로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 여기에다 지엠 대통령의 족벌(族閥) 독재정치에 의한 부패가 기승을 부리게 되어,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엠 일족(一族)은 1963년 11월, 군사 쿠데타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지엠 정권이 무너진 남베트남은 1967년 9월, 응웬반티우(Nguyen Van Thieu)가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4년 동안, 무려 열 번의 정권교체가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국은 혼미상태에 빠졌다. 또한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들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만 몰두하게 되었다.<sup>13)</sup>

이로 인해 군인과 공무원들 역시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종교인, 학생,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 성격의 시위에 가담함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했다.<sup>14)</sup>

13) 장재혁(박사학위 논문), 「제3공화국의 베트남 파병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pp. 69~96.

반면 북베트남의 호찌민은 미국과 싸우는 중에도 중국 및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제안을 거절하고, 오로지 베트남인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부정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청렴한 정치인이었다.

그 예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그가 1969년 9월 2일 79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때, 남겨진 유산이라고는 대나무 침대와 책상, 그리고 애독하던 장서 몇 권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호찌민의 조국애에 감동한 많은 남베트남 주민들조차 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검은 리본을 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한다.<sup>14)</sup>

이 같은 민심은 대규모의 군사력을 동원한 미국의 힘으로도 결코 거스를 수 없었으며, 1968년 1월, 북베트남과 NLF에 의한 '구정공세'를 계기로, 미국 내의 전쟁반대 시위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전쟁과 국민의 반대에 지친 존슨 정부는 협상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파병했던 모든 군대를 철수시키게 되었다. 이로써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남·북의 베트남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 3) 제3차 베트남전쟁(解放전쟁)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남베트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외세척결을 외쳐오던 대부분의 남베트남 국민들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했음에도 북베트남과 NLF의 도발에 대해 방관적 자세로 일관했다.

당시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최신 장비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지상군, 세계 4위를 자랑하는 공군력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낡은 재래식 장비와 빈약한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베

14) 이영희, 『베트남 전쟁』, 도서출판 두레, 1985, pp. 21~61.

15) 윌리엄 J. 듀이커(정영목 옮김), 『호찌민 평전』, 도서출판 푸른숲, 2003, pp. 817~824.

트남과 NLF의 전력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5년 1월, NLF와 북베트남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맞선 남베트남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4월 30일 최후를 맞이하고 북베트남에 의해 조종되는 NLF 정권이 수립됐다. 그리고 허수아비와 같았던 NLF 정권은 1976년 7월 2일,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Vietnam)’에 흡수되고 말았다.<sup>16)</sup>

### (3) 베트남의 전장 환경과 특수성

오랜기간 동안 외세의 통치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해 왔던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을 볼 때 베트남인들이 자국에 진출하는 외국인들에게 배타적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또한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장악한 위정자들에게 거부감을 갖는 것 또한 당연했다. 이 같은 연유로 남베트남 국민들은 “미국의 지원으로 대통령에 오른 응오딘지엠(Ngo Dinh Diem)과 미국 정부는 바오다이(Bao Dai)를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일본 및 프랑스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17)</sup>

뿐만 아니라 지엠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이어 1963년 11월, 지엠 실각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최후의 붕괴』, 군사참고-2, 1985, pp. 37~192.

17) 1945년 3월 9일, 베트남의 프랑스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이 지역을 점령하였던 일본은 그때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인 Nguyen 가(家)의 Bao Dai 황제를 내세워 Co Chin China, An Nam, Ton Kin을 망라한 베트남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하고, 일본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에 포함시켰다.

그 후 일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이 지역을 다시 점령한 프랑스 역시 1949년 7월 1일, Bao Dai를 앞세워 프랑스 연방국가를 수립했다. 그리고 1954년 5월 7일, Dien Bien Phu에서 Viet Minh에게 패한 프랑스는 17도선 이남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북베트남 Ho Chi Minh 정부의 상대로 남베트남에서 Bao Dai 정부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었다.

Ngo Dinh Diem은 이 같은 Bao Dai 정부를 계승해 베트남공화국을 수립했다. 이 때문에 지엠과 지엠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식민세력의 앞잡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계속된 쿠데타 및 정권교체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북쪽의 호치민(Ho Chi Minh)은 평생을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북쪽은 물론 남쪽의 주민들까지도 호치민을 민족의 영도자로 추앙하고 있었다.<sup>18)</sup>

당시 미국은 호치민 정부를 공산주의 세력으로 보고, 남베트남을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및 소련의 세력 진출을 차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루(堡壘)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베트남에서 친(親) 호치민 세력의 반정부투쟁은 곧 북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의 준동(蠢動)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상황은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지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대되면서 격렬한 반정부 투쟁과 함께 무장세력화한 베트남의 세력은 급격히 팽창되어 갔다. 또한 남베트남 자체의 역량으로는 국내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 부대를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쟁을 자유진영 대(對) 공산진영의 대결로 몰아가기 위해 한국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참전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은 베트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남베트남 지역의 대부분을 베트남이 지배하고 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투입할 경우 적대세력을 용이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전장(戰場) 상황은 미군이 경험했던 제2차 세계대전시의 유럽이나 한국전쟁의 정규전 상황과 전혀 달랐다.

첫째, 지형의 특수성으로 남베트남은 중부내륙의 산악 및 정글지대, 동쪽의 해안지대, 델타지방의 늪지대 및 대소의 정글지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해안의 일부 협소한 평야지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정글과 무성한 산림으로 뒤덮인 산악과 저지 및 늪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18) Charles Fenn(김기태 옮김), 『호치민 평전』, 도서출판 자인, 2001, pp. 305~307.

또한 기후면에서 전형적인 열대지역으로 최고 기온은 40℃를 상회하며, 년 평균 최고 기온이 34℃나 되기 때문에 기상조건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우방국 군대의 작전활동은 많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베트남군은 자연적 조건을 이용하여 은거와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보급이나 지원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저항이 가능했다.

둘째, 전쟁 형태면에서 베트남 전쟁은 전형적인 비정규전 형태로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과 북베트남의 국방상 보응웬지압(Vo Nguyen Giap)의 3단계 전법을 기초로 베트남군이 개발한 게릴라전이었다. 즉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편성된 베트남군이 월등히 우세한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 게릴라전과 같은 작전형태를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 결과 베트남군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유격전술을 사용해, 그들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전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습격과 기습, 테러 및 파괴전술을 시도했다. 그들의 구성은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개인으로부터, 사단급 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편제를 가지고 있었다.<sup>19)</sup>

따라서 연합군이 20세기의 최첨과학무기로 장비되어 있었지만,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베트남군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 반면, 베트남군은 연합군과 비교될 수도 없는 열세한 병력과 장비로 지속적인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셋째, 전선없는 전쟁으로, 게릴라전의 특성상 적정이 일정하지 않고, 베트남군의 필요에 따라 전선이 형성되었다. 베트남군은 치고 빠지는(Hit & Run) 전법을 사용해 단시간 내에 공격하고, 전선이 굳어지기 전에 피해 버린다. 따라서 일정한 전선이 없고 어느 곳이나 잠시 형성되었다가 사라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적은 가급적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들의 거점이나 근거지를 은폐했기 때문에 전선의 형성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연합군은 부대이동 및 배치 등 전투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19) Vo Nguyen Giap(한기철 옮김), 『인민의 전쟁 인민의 군대』, 도서출판 백두, 1988.

감수해야 했다. 따라서 연합군은 선정된 기지를 핵심으로 하는 기지작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지를 중심으로 적을 색출 및 소탕하면서 지역을 확장하는 방식의 작전을 전개했다.

넷째, 정치·사상전으로 민사작전과 심리전이 중요시된 작전이었다. 베트남이 게릴라전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과 전선없는 전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베트남군은 주민들의 지지를 거의 절대시하고, 주민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면서 맹렬한 사상적 선전공세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반면 연합군은 베트남 주민들의 전통적인 저항정신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작전은 무력전과 병행해 민사작전 및 심리전을 전개하고, 이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둔 작전을 전개해야만 했다.

다섯째, 정보조성 곤란으로 “남베트남 내의 베트남 병력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중에서도 일부 고위층이었다. 따라서 “어떤 규모의 적이 어느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베트남은 있는 곳도 없고, 없는 곳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지방 게릴라는 조직 자체가 비밀이며, 은밀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더욱 불명확했다. 따라서 “정확한 적정을 적기에 파악한다”는 것은 작전승패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였지만, 연합군은 베트남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여섯째, 연합작전 제한사항으로 베트남에서는 14개국에 달하는 많은 나라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남베트남을 도왔다. 이 때문에 언어, 전술 교리, 군수 등 국제적인 전쟁무대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 베트남전쟁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다. 특히 주월 한국군은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sup>20)</sup>

20) 최용호, 『중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

КСІ

#### (4) 베트남 전쟁의 민사작전과 심리전

민사작전은 군부대가 주둔 및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부대와 정부 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를 다루는 제반 활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및 군사적 상황과 환경요소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민사기능은 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및 선무의 5대 기능으로 분류하고, 민사작전 형태는 군사작전지원 민사작전과 정부행정지원 민사작전으로 구분된다.<sup>21)</sup>

반면 심리전은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 대상의 견해, 감정, 태도 및 행동을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을 말한다.<sup>22)</sup>

이상의 개념과 기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사작전은 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인데 비해 심리전은 적과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민족 간의 게릴라전에 참전한 외국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 민사작전과 심리전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주월 한국군의 경우에도 피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작전과 심리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본고의 내용도 한국군의 민사작전 위주로 제시하되, 심리전 상황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21) 야전교범 100-5, 『작전요무령』, 육군본부, 1996, p. 9-60.

22) 야전교범 100-5, 앞의 책, pp. 9-65.

### 3.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작전

#### (1) 한국군의 파병 및 철수

##### 1) 한국군 파병의 계기와 제1차 파병(이동외과병원·태권도 교관단)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64년 5월 9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25개 자유우방국에 보낸 ‘남베트남 지원요청 서한(書翰)’을 접수하면서부터였다.

한편 1961년 5·16을 통해 집권했던 당시의 군사정부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안보동맹국인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피폐된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이때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파병의 명분은 “공산침략을 받고 있는 남베트남의 사태는 한국의 안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국가안전보장의 측면과 “6·25전쟁시 도와준 자유우방에 보답한다”는 국제적 신의의 차원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파병의 명분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고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파병으로 130명으로 편성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으로 편성된 태권도 교관단 등 140명을 1964년 9월 11일, 파병해 9월 22일 사이공(Sai Gon)에 도착시켰다. 그리고 파병된 이동외과병원은 9월 25일, 남베트남 육군 정양병원이 위치한 붕따우(Vung Tau)에 도착해 9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태권도 교관단은 남베트남 군사교육기관에서 남베트남군을 지도하게 되었다.<sup>23)</sup>

23)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3~14.

## 2) 제1차 파병(건설지원단)

정부가 제1차 파병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을 즈음인 1964년 8월 2~4일, '통킹만 사건'<sup>24)</sup>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북베트남을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8월 5일, 항공모함을 통킹만 일대로 급파해 북베트남의 주요시설에 집중적인 공중폭격을 가했다. 이로써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이 확대되자, 미국은 전쟁의 명분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유우방의 지원이 필요했다. 아울러 남베트남의 후방지역에서 전쟁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던 남베트남군을 전선에 투입함으로써, 후방지원 병력의 추가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1964년 12월 18일, 브라운(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남베트남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할 비전투부대의 파병을 요청하는 존슨 대통령의 친서를 박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미국의 '비전투부대 파병 요청'을 접수한 정부는 준장급의 '한국군군사원 조단' 본부를 지휘부로 하는 2,000명 규모의 파병안을 마련해 주한 미군사령관과 합의했다. 이어서 정부는 1965년 1월 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한국군 제2차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했으며, 1월 26일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건설지원단을 편성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뜻에서 '비둘기부대'로 명명했다.

파병준비를 마친 비둘기부대는 3월 10일, 인천항에서 미 해군 수송함에

24) '통킹(Ton Kin)만'은 베트남 북부지역과 하이난섬(海南島) 사이에 위치한 만(灣)으로 베트남에서는 '빈박보(Vinh Bac Bo: 북부만)'라고 부른다. '통킹만 사건'은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1964년 8월 2일, 통킹만 공해상에 정박중인 미 해군함정 매독스(Maddox)호를 공격한데 이어 이틀 후인 8월 4일에는 터너조이(Tunerjoi)호에 대해 같은 방법의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미국의 함정을 공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미 해군 레이더 관독병의 실수였다"는 주장도 있다.

탑승해 미 제7함대 소속 함정과 함재기의 호위를 받으며 출항한 후 3월 16일, 사이공에 도착했다. 사이공에서 한·미·남베트남 정부 요인과 주민들의 환영 속에 상륙한 비둘기부대는 시가행진을 마친 후, 사이공 동북방 22km 지점의 지안(Di An)으로 이동해 주둔하면서, 사이공 외곽도로 건설과 각종 건설지원 임무를 수행했다.<sup>25)</sup>

## 2) 제3차 파병(수도사단·제2해병여단)

한국군의 제2차 파병이 있었던 1965년이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미국의 강력한 북폭에도 불구하고, 호치민 루트를 이용한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파가 계속되었다. 따라서 베트남 남부의 전 지역에서 지상전투가 격화되고 있었다.

이때 미군은 미 본토의 예비병력과 해외 주둔군의 일부를 베트남전쟁에 투입했으나, 병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 미군 2개 사단도 언제 남베트남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1개 사단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는 신념으로 미국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한편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주한 미 대사와 협상을 통해 “① 파병 병력의 상한선은 5만명 이내로 한다. ②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③ 북한의 침공시 미국이 즉각 출병할 수 있도록 한·미 방위 조약을 개정한다. ④ 파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⑤ 남베트남에서 사용할 군수품 공급 등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市場) 진출을 보장한다”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은 1965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 최용호, 앞의 책, p. 14.

1965년 6월 14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데 이어 8월 13일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1개 사단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1965년 9월 25일부로 ‘주월 한국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채명신 소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을 개편해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로 명명하고 파병을 위한 교육훈련을 서둘렀다.

그리고 10월 20일, 사이공에 ‘주월 한국군사령부’를 개소했으며, 제2해병여단이 10월 9일까지 캄란(Cam Ranh)에 상륙하고, 수도사단(-1)은 11월 1일까지 쾨년(Quy Nhon)에 상륙함으로써, 파병된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본격적인 작전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sup>26)</sup>

#### 4) 제4차 파병(제9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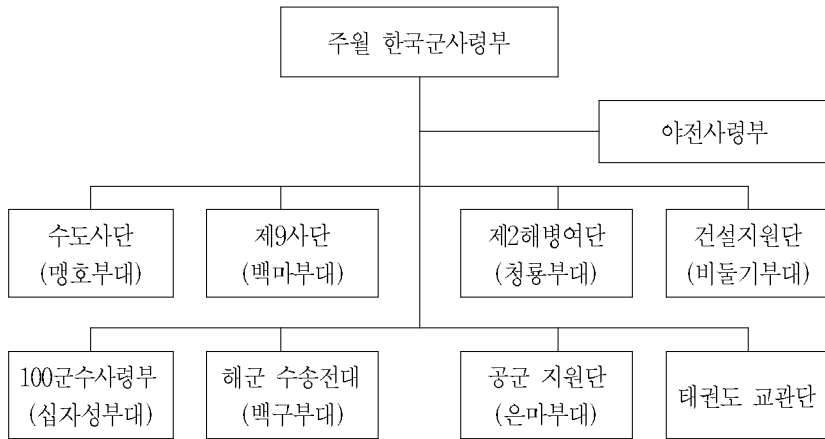
제3차 파병으로 남베트남에 파병된 수도사단과 제2해병여단이 현지에서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게 되자, 미군은 물론 남베트남 정부도 한국군의 전투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병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던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작전환경에 한국군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게 되었다.

또한 주월 한국군사령부의 입장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위해 군단급 규모의 병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한국 정부에서도 “5만명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4차 파병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66년 2월 22일 남베트남 정부로부터 1개 전투사단의 추가 파병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받아 3월 20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수도사단 제26연대와 제9사단의 파병을 결정했다. 이어서 파병준비를 마친 수도사단 제26연대는 4월 15일 쾨년에 상륙하고, 제9사단(백마부대)은 10

26) 최용호, 앞의 책, p. 15.

<표 1> 주월 한국군의 편성 기구도



월 8일까지 님호아(Ninh Hoa) 일대에 전개했다.

또한 군단급 규모의 부대가 파병됨에 따라 이들의 전투근무지원을 위해 수도사단 예하의 군수사령부를 개편해 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를 창설했으며, 해상수송지원을 위해 비둘기부대 예하의 해군수송분대를 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로 개편하고, 근접항공지원 및 공중수송지원단을 모체로 공군지원단(은마부대)를 창설해 각각 주월 한국군사령부 예하부대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주월 한국군은 <표 1>과 같이 군단급 규모의 제대로 확장되어 명실공히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sup>27)</sup>

#### 5) 베트남 평화협상과 한국군 철수

1968년 1월 30일에 감행된 베트남의 구정공세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TV와 신문 등 언론의 영향으로 반전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9

27) 최용호, 앞의 책, p. 16.

년 1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공산군측과 평화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남베트남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발표했다. 이어서 1969년 7월부터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인이 수행하게 한다”는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미국이 평화협상을 위해 일부 병력을 철수시키자, 전투부대를 파병했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일랜드 등 연합국도 이에 동조해 점차 주력을 철수시킴에 따라 1971년 말에는 100명 정도의 상징적인 병력만을 잔류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1971년 중반기부터 파병 병력의 철수를 검토해 1971년 12월 4일, 제2해병 여단의 철수를 시작으로 1972년 4월 1일까지 9,476명의 병력을 철수 시켰다. 반면 2개 보병사단을 주축으로 한 전투병력(37,000여명)은 1973년 초 휴전이 될 때까지 계속 잔류시켰다.

이로써 1972년 후반기부터 주월 한국군의 병력규모는 미국의 지상군 규모를 능가해, 참전국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으로 남베트남군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후 1973년 1월 8일, 파리에서 체결된 ‘베트남평화협정’에 따라 주월 한국군의 제2단계 철수가 시작되었다. 한국군은 잔류부대의 철수를 지시한 국방부 훈령에 따라 3월 14일까지 본대가 철수하고, 3월 23일 후발대 118명이 항공기를 이용해 복귀함으로써, 남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모든 부대가 철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1964년 9월 23일 이동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파병된 이래 후발대가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 8년 6개월 동안 연인원 32만여 명이 참전했으며, 5,000여 명의 전사망자가 발생했다.<sup>28)</sup>

28) 최용호, 『중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615~617.

## (2) 한국군의 작전과 민사작전 개념

1965년 한국군의 전투부대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을 때 주월 미군은 “베트공을 탐색하여 격멸 한다”는 작전개념(Search & Destroy)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 위주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게릴라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던 주월 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장군은 군사력만으로는 베트남의 게릴라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의 작전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개념을 구사해 “분리(Separation)-차단(Interception)-격멸(Destroy)”의 3단계 작전을 수행했다. 한국군의 이 같은 3단계 작전개념은 게릴라에 의한 비정규전 상황하에서 민사작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립된 작전개념이었다.<sup>29)</sup>

즉 베트공 게릴라를 주민 속에 잠입시켜 물위의 기름방울처럼 확산시키는 공산군의 전술을 역이용해, 1단계로 수어지(水魚之)관계인 적과 주민을 분리시킨다. 이어서 2단계로, 주민과 상호관계를 차단하여 적을 고립화시킨다. 그리고 3단계로 고립화 내지는 무력화된 적을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포위 및 포착 섬멸한다.

이어서 전과확대로 남베트남 정규군, 지방군, 민병대 및 혁명개발단과 협조해 지역을 평정하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평정된 지역을 남베트남 지방정부에 인계하고, 기(既) 확보된 지역을 기반으로 평정지역을 축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한국군의 작전개념은 적과 주민을 분리하는 1단계 작전시부터 격멸 및 평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의 민사작전 목표는 “남베트남 주민들과 베트공을 분리시켜 남베트남

29) William C. Westmoreland(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했는가』, 광명출판사, 1976, pp. 157~158.

주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고취시키고, 남베트남 정부의 평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한·남베트남 양국의 신의와 우호를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위를 선양함과 아울러 국가의 파병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다.<sup>30)</sup>

이 과정에서 미군의 민사작전은 외국인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전통적인 배타감정으로 인해 결정적인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군은 베트남인과 같은 동양인이라는 점과 동족간의 전쟁을 경험하였던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이 결합되어 베트남 주민들도 한국인에 대해서 만큼은 우호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월 한국군의 모든 장병은 전투요원인 동시에 민사심리전요원이 되어 “100명의 베트남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정신 아래 남베트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남베트남인의 생활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남베트남 간의 친선유대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한국군의 민사작전 및 심리전 활동방법은 대민지원을 통해 주민 속에 파고들어 민사작전 및 심리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민사작전은 대민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같은 대민지원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현실적인 요구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생활방편이 될 수 있는 자조사업에 치중하고, 전술지역 주변의 촌락에서부터 대민지원을 강화 및 확장했다.

그리고 1968년 구정공세 이후에는 사이공을 비롯해 인구조밀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아울러 심리전을 병행하여 전술책임지역 주민의 소개, 피난권고, 귀순권고 등을 실시함으로써, 작전을 지원하고, 남베트남 주민들에게 한국군에 대한 신뢰심과 남베트남 정부의 지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sup>31)</sup>

30) 박경석,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전술교리와 작전』,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159~240.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사료, 『각부대민사심리전』, 사료No 90-1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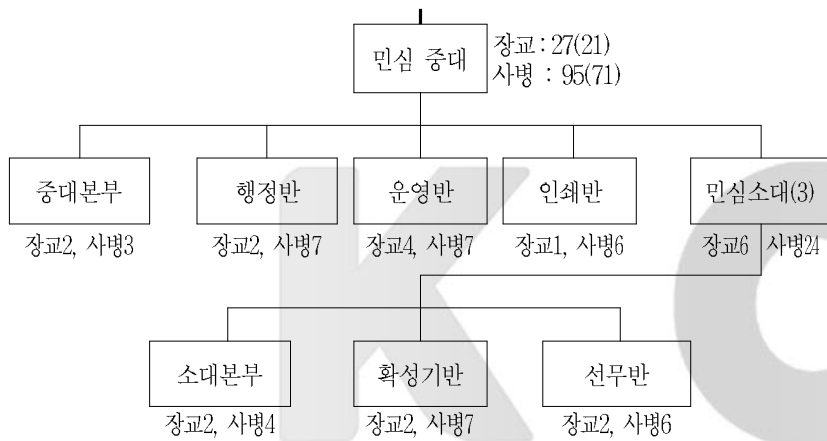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목표와 방침아래 파월 이후 주월 한국군이 실시했던 군사작전과 민사심리전의 비중을 보면 파월 초기에 군사작전 70%, 민사심리전 30%이던 것이 1967년 중반기부터는 군사작전과 민사심리전이 각각 50%로 대등한 수준으로 양분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오히려 군사작전 30%, 민사심리전 70%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다.<sup>32)</sup>

### (3) 민사 심리전부대 편성 및 지원 체제

주월 한국군사령부에는 사령부 직할중대로 민사심리전을 전담하는 민심중대가 편제되어 있었는데, 민심중대의 세부편성은 <표 2>와 같다.

민심중대의 임무는 <표 2>의 세부편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단과 확장기 등을 이용해 선무심리전을 전담하는 부대였다. 따라서 일반적 의미의

<표 2> 민사심리전 중대 편성



자료출처: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974, p. 936.

32) 최용호, 앞의 책, 제2장 주월한국군사령부 작전 및 활동, pp. 59~154.

민사작전은 민심중대의 임무가 아니라 주월사 예하의 전부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였다.

당시 주월사령부는 6개의 참모부(인사·정보·작전·군수·민심·통신전 작전)가 편성되어 있었다. 이중 민사심리전 참모부에는 참모(대령), 보좌관(중령), 민사장교(중령), 기획장교(소령), 원조기획하사관(중사·하사2명), 타자병 등 장교 4명, 하사관 3명, 병 1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민심참모부의 임무는 민심중대를 직접 통제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보다 중요한 임무는 예하 전부대가 민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통제 및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월사 예하의 사단 및 여단에도 부대규모에 부합되는 민심참모부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연대급이하 제대에서는 통상 정보주임(장교)이 민심참모 임무를 겸했다. 그러나 주월 사령관은 이 같은 참모부별 소관 임무에도 불구하고, 전 장병이 민사심리전 요원이 되어 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sup>33)</sup>

민사작전 및 활동을 위한 지원체제는 <표 3>과 같으며, ① 지시계통, ② 물자 및 자금 요청계통, ③ 사업지원 요청계통, ④ 사업 지원계통, ⑤ 협조 계통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sup>34)</sup>

<표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시계통은 군 편제의 지휘체제에 따라 모든 사업이 지시 및 하달되며, 통제 및 감독된다. 자금 및 물자요청 계통으로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는 주월 미 지원사령부(MACV)<sup>35)</sup>에 요청하게 되며, 기타부대는 단위대별로 남베트남 성청(省廳) 및 군청(郡廳)에 파견되어 있는 미 고문관 계통으로 요청된다. 이 밖에도 각 부대별로 미국 대의원조물자발송협회(CARE)<sup>36)</sup> 및 카톨릭구호봉사회(CRS)<sup>37)</sup>에 구호물자를 요청하게

3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전쟁 사료, 「예규철」, 사료No 90-1982.

34) 주월한국군사령부, 앞의 책, pp. 853~960.

35) MACV: the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주월미지원군사령부(駐越美支援軍司令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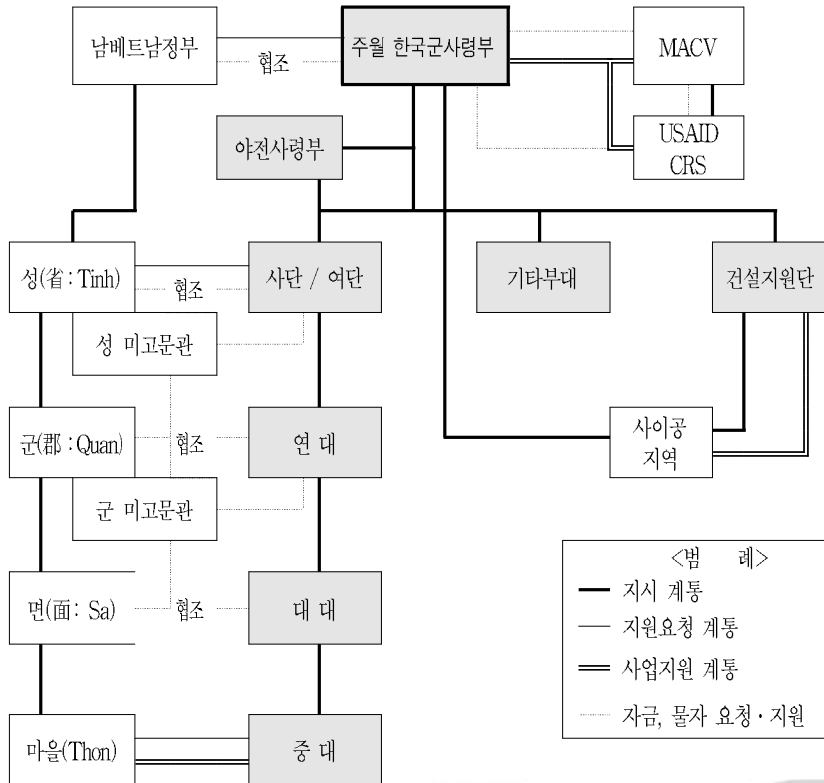
36) CARE: 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to Everywhere Inc, 미국 대의원조물자발송협회.

KCSI

---

37) CRS : Catholic Relief Society, 카톨릭구호봉사회.

<표 3> 대민사업 지원체제



자료출처 : 주월한국군사령부, 『월남전종합연구』, 1974, p. 869.

된다.

한편 남베트남측에서 대민사업을 요청하는 계통은 남베트남 정부의 행정 관서를 통하되, 사이공 지역은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 직접 요청하며, 기타 한국군 주둔지역은 남베트남 정부 행정계통을 통하거나 군 단위부대에 대민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상급부대에 보고되었다.

또한 사업지원계통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요청된 물자 및 자금을 주월 미군사령부에서 승인하여 미 국제개발국(USAID)<sup>38)</sup>에 통보하면, 미국 국제개

발국은 요청된 부대에 물자 및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농사자금만은 주월 한국군사령부에서 매월 수령하여 예하 각 부대에 지원했다.

한편 남베트남측에서 요청된 대민사업은 지원규모가 크고, 예산이 따르는 사업의 경우 상급사령부의 통제하에 지원했으며, 규모가 적은 비예산사업은 예하부대 능력에 따라 지원했다. 또한 주월 한국군사령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협조 및 지원하고, 예하 각 부대에서는 부대 단위별로 성장과 군수, 면장 및 마을의 촌장과 협조해 사업을 요청 받아 지원했으며, 성청 및 군청에 파견된 미 고문관과 대민사업 물자획득에 대해 요청 및 협조했다.

#### (4) 한국군의 민사작전 및 활동 내용과 실적<sup>39)</sup>

1965년 3월, 비둘기 부대가 파월 되면서부터 한국군은 기본 임무수행과 함께 지방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앞장 서 왔으며, 남베트남에서 한국군의 대민지원은 기본적인 임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민지원의 범위는 남베트남 국민들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술·장비·인력·물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사항에는 구호사업, 의무지원, 태권도 및 유도 보급, 그리고 각종 친선행사 등이 있었다.

이 같은 대민지원은 대적·대민선무방송과 전단살포, 사진전시 및 영화상영, 기타 행사 등의 심리전 활동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전투와 병행하여 가옥, 도로, 교량, 시장, 문화시설, 보건 및 위생시설, 면사무소 등 각종 시설을 신축 및 보수하여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이양함으로써, 한·남베트남 간의 유대 강화는 물론이고, 남베트남 재건계획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제반 건설활동은 남베트남 정부의 농촌개발 사업과 중복

38) USAID : US Agency for Development, 미 국제개발국(美國國際開發局).

39) 주월 국군사령부, 앞의 책, pp. 853~960.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으며, 모든 공사에는 남베트남 주민들의 참여와 자립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배려해 추진했다.

#### 1) 농경지원

남베트남 중부 해안지대에 주둔하고 있던 주월 한국군은 남베트남 농촌 진흥에 관심을 갖고, 남베트남의 농업근대화에 많은 공헌을 했다. 한국산 농기구의 보급 및 농경법의 지도, 그리고 모심기와 추수기에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했으며, 한국 농업기술단과 협조해 농경기술 제공 등의 방침을 세우고,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확장 등 직·간접으로 농업진흥에 기여했는데, 기간 중 지원실적은 <표 4~5>와 같다.

<표 4> 대민 영농 지원 및 시범 실적

구 분		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농경 지원	회 수	5,293	76	141	725	2,725	957	658	11
	지원면적(h)	1,372	42	338	65	378	416	123	10
	지원인원(명)	79,258	1,698	4,602	12,619	36,669	16,850	6,747	73
농경 시범	회 수	264		87	34	121	8	14	
	참가인원(명)	16,299		6,402	4,512	5,055	149	181	

<표 5> 대민 영농 장비 및 기구 지원 실적

장비명	도자	덤프	2½톤	구레이다	쟁기
수 량	647	106	233	17	121
장비명	삽	낫	곡괭이	탈곡기	기타
수 량	3,090	1,415	1,011	65	1,101

## 2) 구호활동

구호활동은 베트남과 접촉이 많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자들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는 각종 구호물품을 보급함으로써, 베트남 지배하에서 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주민 스스로가 베트남과 관계를 단절하고 남베트남 정부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며, 구호를 받는 자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구호물자는 각 지방의 성청 및 군청에 파견되어 있는 미 고문관과 협조하여 획득하고, 미국 대외원조물자발송협회 및 카톨릭구호봉사회에 요청하여 획득하도록 했으며, 각 부대는 절약된 급식미를 구호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베트남으로부터 귀순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1번 도로를 연하는 지역에 정착하도록 주택을 건립해 제공했으며, 농토를 개간해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제반 식량, 의류 등을 지원하고, 또한 자립할 수 있는 생활 대책으로 농기구 및 종자와 가축 등을 제공했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에게는 일시적이거나 기거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제공하고, 식량, 의류, 식수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군 지역이나 남베트남 정부 통제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군 작전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호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을 갖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극빈자, 양로원 및 고아원, 각종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한(親韓) 여론을 조성했는데, 구호를 위해 사용한 물자는 <표 6>과 같다.

## 3) 진료 활동

남베트남 행정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벽지까지 진료활동을 전개하여

&lt;표 6&gt; 대민 구호물자 사용 실적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식품류	백 미(톤)	16,220	100.3	1,789.4	3,078.2	3,598.8	2,629.8	1,854	1,842	1,328
	밀 (톤)	1,169	72	40.4	744.4	210.2	100.4	2		
	옥수수(톤)	736		5.7	265.8	260.5	142.2	13		40
	밀가루(톤)	1,007			102.4	249.5	138.7	2	349	165
	식유(G/A)	173,877	820	10,820	71,650	39,766	50,091	458	24	248
	우 유(kg)	140,423	75	6,957	82,379	16,909	16,095	2,879	2,316	12,813
	설탕(kg)	68,377			29,150	18,242	19,998	480	110	397
의류	피복(점)	430,069	4,170	32,540	57,710	88,254	55,315	121,088	65,867	5,125
	모포(매)	31,695	626	3,147	25,549	1,622	718	30	3	
건설 및기타	목재(B/P)	2,554,947	1,230	49,063	1,116,110	539,827	396,790	300,572	115,218	36,218
	시멘트(포)	95,754		319	1,8595	28,096	29,834	14,543	2,494	1,873
	함석(매)	34,779		1,796	15,183	9,352	4,982	2,511	140	815
	농기구(점)	6,406		2,203	728	2,135	853	330	157	
	학용품(점)	526,007			50,889	148,954	162,925	78,575	58,524	26,140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여 한국군의 작전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진료방법은 고정진료소와 이동진료소를 통해 실시했다. 주민분포를 고려해 대대급 이상 부대별로 지역을 편성하고, 고정 진료소를 설치해 군의관을 포함한 진료반을 편성 파견했으며, 고정 진료소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벽지 주민을 위해 중대단위로 이동 진료반을 편성, 운용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완치될 때까지 진료를 제공했으며,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남베트남 부녀자의 출산에 이르기까지 군의관 및 위생병을 최대한 동원해 진료했다. 또한 한국군 각급병원에서는 남베트남인 환자를 외래환자로 취급, 진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는 입원시켜 치료했다.

&lt;표 7&gt; 대민 진료소 운용 및 진료 실적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진료 소	고 정	260	9	24	51	47	43	35	36	15
	이 동	1,572	63	218	230	224	226	221	212	178
의료 인원	계	217,713	1,377	14,198	22,840	16,671	54,945	61,586	30,723	15,373
	장 교	49,064	455	3,718	8,986	4,264	9,268	12,625	5,652	4,096
	사 병	164,165	922	10,480	13,854	12,407	43,929	47,815	14,783	1,975
	간호장교	4,384					1,748	1,146	288	1,202
입원 및 진료	계	3,523,364	49,120	304,670	609,530	552,200	962,798	626,364	312,279	106,403
	치 료	3,504,650	48,374	302,586	605,810	550,277	959,024	622,504	310,541	105,534
	입 원	8,940	253	1,568	2,667	1,343	766	1,499	360	484
	환자수송	9,774	493	516	1,053	580	3,008	2,361	1,378	385

아울러 각 부대는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부대별 책임지역 모든 마을에 대해 방역활동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이발 봉사도 제공했다.

#### 4) 자조사업

농사에만 의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자립능력을 갖게 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지원단, 수도사단, 해병여단, 100군수사령부 등은 직업훈련소 건물을 신축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기간은 가사반 4개월, 기계기술반 7개월, 양재반 6개월, 타자반 4개월 등이었다. 수료자들에게는 남베트남 정부와 협조해 직업을 알선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자조사업은 지역 주민분포와 여건을 고려해 각 부대별로 적합한 기술학원을 운용토록 했다. 교육 수단 및 방법으로 남베트남인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비와 운영자금의 일체를 대민지원 예산으로 조치했다. 그리고

&lt;표 8&gt; 자조사업 교육 수료 인원 실적

구 분	계	1968	1969	1970	1971	1972
계	1,553	328	342	322	344	217
가 사 반	60		20	18	22	
기계기술반	258	20	33	59	102	44
양 재 반	793	151	181	157	153	151
타 자 반	442	157	108	88	67	22

각 과정의 입교식과 졸업식 행사에 부대 지휘관 및 관계자가 참가해 한·남베트남 간의 유대강화와 자립정신을 주입시키고, 친선유대를 강화하도록 했다. 각 과정별 수료인원은 <표 8>과 같다.

#### 5) 대민 건설지원

남베트남 지역사회 방어 및 개발계획에 적극 호응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교육 및 문화, 예술 및 종교, 교통 등의 발전을 돕기 위해 적극적 대민지원의 일환으로 건설지원 사업을 했다. 이 같은 건설지원 사업은 남베트남 정부와 사전 협조하고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력, 장비, 기술을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은 신축공사와 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신축공사는 남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담당하여 실시하고, 준공식 및 이양식을 통해 한·남베트남 간의 친선 유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주월 한국군의 업적을 기념하고, 한국의 일을 남베트남에 심도록 했다. 또한 보수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대 능력에 따라 개인시설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자재를 절약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건설지원 사업실적은 <표 9>와 같다.

&lt;표 9&gt; 대민 건설지원(신축·보수) 사업실적

구 분	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신축 시설	가 옥(동)	1,740		237	186	1,005	85	205	18	4
	교 실(동)	357	15	28	69	116	48	55	22	4
	교 량(개)	132	3	22	46	44	11	5	0	1
	도 로(km)	393.8	20.9	61.6	100.4	144.4	30.2	24.15	6.75	5.4
	사무실(동)	130	2	8	41	50	12	12	3	2
	강 당(동)	1			1					
	공공 시설	613	20	75	187	167	97	46	17	4
	기타(개소)	478		53	129	116	99	33	36	12
보수 시설	가 옥(동)	903		42	136	82	218	278	103	44
	교 실(동)	280		9	29	99	92	18	28	5
	교 량(개)	216		6	18	33	73	42	43	1
	공공 시설	972	1	59	124	185	290	230	71	12
	기타(개소)	1,399	5	73	211	264	390	290	156	10

## 6) 태권도 및 유도 보급

태권도 및 유도를 남베트남에 보급하여 남베트남 국민들의 체력 향상과 반공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확고한 투지를 가다듬게 하는 한편 한·남베트남 간의 친선과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또한 부수적인 것이었지만, 민사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첩보를 수집해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한국 태권도의 해외 진출은 1959년 3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연무(鍊武)시범단(단장 이하 17명)이 동남아시아를 순방(巡訪)중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이공(Sai Gon)을 비롯한 각 지역을 1개월 동안 순회하면서 시범(示範)한 것이 그 효시(嚆矢)였다. 그 후 다시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를 보급함과 아울러 한·남베트남

양국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23일부터 1년간 남태희(南泰熙) 육군소령 등 4명의 교관단이 남베트남 육군보병학교에서 태권도를 보급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964년 9월 22일, 제1이동의과병원의 파병과 함께 태권도 교관단 10명(장교)이 파병되어 사이공의 경찰학교, 투덕(Thu Duc)의 육군보병학교, 다랏(Da Lat)의 육군사관학교, 나짱(Nha Trang)의 해군사관학교, 봉따우(Vung Tau)의 유년학교에서 각각 태권도를 보급하게 되었다.<sup>40)</sup>

한편 태권도 교육에 의한 민사작전 기여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자,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유도를 남베트남에 보급하기로 하고, 1967년 4월 대한유도협회에 유도교관의 파월을 요청했다. 이 결과 1967년 9월 29일, 최초로 유도교관(장교) 3명과 조교(사병) 7명이 파병되었으며, 1969년 6월 19일 주월 한국군사령부 태권도단과 통합되어 태권단 유도부로 개편, 운용되었다.<sup>41)</sup>

이와 같이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태권도 및 유도 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권도 및 유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 격파를 포함한 묘기와 위력을 과시하는 시범행사를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은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남베트남 측과 협조했다. 아울러 각 부대별로 베트남 주민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태권도 시범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주월 한국군사령부에 편성된 태권도단은 각 지역별로 분단(分團)을 편성하고, 태권도 및 유도 교관을 파견해 도장을 운용했으며, 각 부대는 단위부대별로 태권도 교육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도록 했다. 이 결과 <표 10>과 같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40) 전사편찬위원회(김기옥 등 12인), 『파월한국군전사(1상)』, 국방부, 1978, pp. 191~193.

41) 주월한국군사령부(손종성), 앞의 책, pp. 897~898.

&lt;표 10&gt; 태권도 및 유도 교육 실적

구 분	1962	1963	1964	1966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교관단	태권도	4		10	20	100	146	198	205	208	199	22
	유 도						10	10	17	17	8	3
도 장	태권도	1	1	4	7	16	62	91	103	107	80	4
	유 도						6	12	16	13	14	4
태권도	총 원	62	77	440	1,602	5,405	81,648	104,410	137,235	174,083	196,971	210,206
수련생	유단자			10	23	24	257	491	1,091	1,566	2,017	2,916

수련생의 승급 및 승단 심사는 태권도의 경우 초기에는 한국 태권도단에서 주관했다. 그 후 남베트남인의 유단자 양성에 따라 유급 및 1~2단 심사권을 남베트남측에 이양함으로써, 남베트남인들 스스로가 태권도 수련생을 양성하도록 했다.

또한 유급증 및 유단증 발급은 한국 국제태권도협회에서 주월 한국군사령관을 남베트남 태권도 협회장으로 위촉해 주월 한국군사령관 명의로 발행하게 되었고, 사령관이 발행한 유급 및 유단증은 언제든지 한국 국제태권도협회에서 교부해 주었다. 유도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한유도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받도록 하거나 남베트남유도협회에서 발급받게 했다.

또한 남베트남 각 군단 및 각 지역별로 태권도에 대한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령관기 쟁탈전을 년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분위기를 고취했다. 이와 같이 태권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짐으로써, “한국군은 모두가 태권도의 유단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친밀하고, 베트남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한국군의 전반적인 인식을 크게 향상시켰다.

## 7) 친선활동

친선활동의 목적은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군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해 주어 빠른 시간 내에 친밀해 짐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민사심리전 활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물자는 매월 할당되는 민사심리전 예산을 절약해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친선활동의 수단으로는 운동경기, 경로회, 어머니 및 어린이 잔치, 위문공연, 초청행사, 방문행사, 자매결연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한국군은 주둔지 인근의 주민과 이 같은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의 풍속과 문화의 공통성을 이해하고, 여론 지배층에 있는 지식인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 및 개인 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역 주민과 상호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친한(親韓)여론을 조성해, 남베트남 정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선도할 수 있었다.

<표 11> 친선활동 실적

구 분		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운동경기	회 수	2,485	47	118	454	1,129	449	246	42
	참가인원	238,275	11,860	62,320	52,172	66,928	21,881	22,555	559
경로회	회 수	2,299	70	103	569	880	415	250	12
	참가인원	98,259	4,980	10,970	37,392	28,293	12,625	3,826	173
어머니잔치	회 수	1,066		10	27	299	500	120	110
	참가인원	39,182		1,070	1,720	16,099	16,246	2,504	1,543
어린이잔치	회 수	3,483	42	244	909	1,463	477	339	9
	참가인원	217,521	4,490	75,650	67,726	46,705	15,634	5,983	1,333
위문공연	회 수	2,304	169	117	411	717	423	340	127
	참가인원	530,517	101,700	58,300	86,457	113,039	98,345	49,108	23,568
초청행사	회 수	36,014	30	202	13,045	12,954	6,699	2,550	534
	초청인원	234,624	1,800	5,317	74,964	97,803	33,749	13,872	7,119
방문행사	회 수	197,075		1,242	85,110	56,000	36,080	15,940	2,703
	방문인원	1,357,544		12,430	497,583	521,933	212,664	98,235	14,699

### (5) 한국군의 민사작전 및 심리전이 전쟁에 미친 영향

베트남전쟁에서 민사작전 및 심리전은 무력에 의한 군사작전 이상으로 중요한 작전이었다. 베트남전쟁은 궁극적으로 1,800만 남베트남 주민들이 “내 나라와 정부를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충성심을 가질 때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월 한국군은 베트남전쟁의 최종 승리를 위해 남베트남 주민들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 및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한국군의 민사작전 및 심리전은 1차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군은 오랜 전란(戰亂)으로 낙후된 베트남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경지원을 비롯해,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난민들에게 생활의욕을 북돋아준 각종 구호활동과 부족한 의료시설로 말미암아 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병에 신음하는 극빈자들을 정성껏 보살펴 준 진료활동은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준 바 있었다.<sup>42)</sup>

특히 전란 속에서 기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기술을 익히게 한 자조(自助)사업과 전쟁으로 파괴된 가옥 및 공공시설을 신축 또는 보수하여 삶의 터전을 마련해준 건설(建設)사업 등은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생활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및 유도 보급으로 남베트남 민·관·군에게 건전한 정신력과 체력의 향상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밖에 각종 친선활동을 통해 한·국민족의 숭고한 얼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남베트남 간의 깊은 우의와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sup>43)</sup>

42) 국방홍보원(3부작 다큐멘터리),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제1편)』, 베트남 노인의 증언, 2002. 12. 31;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870~878; 기타 많은 관계자들의 증언과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3) 본문의 내용은 참전용사 및 베트남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한·베트남 교류 및 베트남에서 불고 있는 한류의 열풍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은 대민사업은 파월 당시 흑백이 분명치 않았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한국군은 진정으로 남베트남을 돕기 위해 파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효과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은 한국군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은 점차 베트공과 접촉을 꺼리거나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베트공 활동은 차츰 난국에 빠져들어 갔고, 그들의 하부조직은 깊은 산악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때까지 지역 주민들 속에 숨어서 베트공에 동조하며 아군의 첩보를 제공하던 불순분자들은 점차 행동의 제한이 커짐에 따라 남베트남 통제지역으로 귀순하는 자가 늘어갔으며, 아군은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었다.

그 결과 “전선 없는 전장에서 적과 주민을 분리시켜, 고립화된 적을 격멸한다”는 한국군의 작전개념이 효과를 발휘하게 됨에 따라 적에게 흘러 들어가던 아군의 첩보는 감소되는 반면, 아군은 적에 대한 첩보를 보다 용이하게 입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군은 월등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점차 평정지역을 확대하면서, 베트공 지배하에 있었던 지역마저 남베트남 통제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sup>44)</sup>

이 같은 한국군의 민사작전 및 심리전 사례를 통해 볼 때 “베트남인들의 진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념대결로 몰아간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베트남전쟁에서 최종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 또한 효과적인 민사작전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군의 작전은 미군 등 다른 국가의 군대에 비해 효율적인 대민 작전을 전개했다고 하나, 일부부대의 무리한 작전과 무력위주의 작전으로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사료철(사료 No. 90-1495), 『신문첩보』: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공 포로를 신문해 획득한 자료로 당시 ‘베트공이 평가하는 한국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일부지역에서 대민피해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국지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sup>45)</sup>

따라서 차후 유사한 파병에 대비한 교훈적 사례와 함께 “한국군이 보다 체계적으로 한 차원 높은 민사작전을 수행했다면, 오늘날 일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관점에서 도 베트남 전쟁의 민사작전 사례를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sup>46)</sup>

## 4. 국군의 해외 파병시 교훈적 요소

### (1) 파병 상황의 인식 및 이해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게 되는 상황 및 여건을 크게 구분한다면, ① 침략 전쟁을 감행하는 경우, ② 국제적인 다국적군의 구성으로 무력개입의 명분이 필요한 경우, ③ 현지의 상황이 악화되어 해당국가 및 일부 지원국가의 능력으로 수습이 불가능한 여건하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憲法) 제5조에 침략전쟁(侵略戰爭)을 부인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침략전쟁을 감행할 만한 여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①항의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병은 ②, ③항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개 항이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해외파병은 “승패를 점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이 전

45)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도서출판 책갈피, 2002 참조.

46) 강정구, 한홍구 등,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베트남전진실규명 위원회·군사평론가협회” 공동세미나 자료, 2000.

개되고 있거나, 각종 폭력이 난무해 혼란이 극치에 이른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파병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파병지역의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굳이 외국 군대가 파병되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군이 파병되는 지역의 상황은 대부분 매우 유동적이어서 베트남전쟁과 같은 게릴라전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동티모르 사태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원하는 상황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동티모르의 교훈이 현재의 이라크 사태 및 파병되는 국군에게 현 작전 및 활동의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라크의 사태는 베트남전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점을 이해한다면, 해외파병의 결정과정과 파병된 국군이 활용될 수 있는 작전 및 활동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베트남전쟁과 이라크 사태의 유사점은 첫째, <표 12>와 같이 현재의 이라크 상황이 1955년 10월 26일,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의 남베트남 정부가 수립될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을 식민지배(植民支配)하고 있던 프랑스 정부가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베트남의 호찌민군에게 패배한 후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심하게 되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응오딘지엠의 후견국(後見國)을 자처함으로써 베트남 사태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엠 정부가 수립된 1955년부터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만들어진 1960년까지의 기간은 “베트남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여 공산주의 팽창정책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민주정부를 건설한다”는 미국의 의도가 순조롭게 달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은 “외세를 배척하고 베트남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베트남의 민족주의를 자극해 공산진영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적대세력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 &lt;표 12&gt;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패배~미국의 참전까지 상황

- 1954. 5. 7: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 패배  
: 한국전쟁 이후 프랑스군 원조를 위해 소수의 미군 군사고문단 파견
- 1954. 7. 20: 제네바협정 체결(남북 분할, 2년 후 총선거 실시)
- 1955. 10. 26: 미국의 지원으로 남쪽에 응오딘지엠 정부 수립  
: 미군 군사고문단 파견 및 미국 정부의 베트남 사태 개입 본격화
- 1960. 12. 20: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결성  
: 베트공의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미국의 개입 증대됨
- 1962. 2. 8: 미국, 남베트남에 군사원조사령부(MAC-V) 설치  
: 하긴스 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 미국의 본격적 개입으로 전쟁구도가 마련됨
- 1964. 2. 3: 베트공, 끈뚱의 미 고문단 막사 습격,  
: 미군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 테러활동 사례, 그 후 계속되는 테러로 이어짐
- 1964. 8. 4: 퉁킹만 사태, 미국 북베트남 공습, 전면전으로 확대  
: 북베트남 정규군의 남파로 전쟁이 계속 확대됨

자료출처: 최용호,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③』,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pp. 863~864.

이에 따라 미국은 점점 더 깊은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으며,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73년 형식상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철수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베트남의 승리, 미국의 유일한 패배”로 기록된 전쟁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이라크 사태를 베트남전쟁에서 겪었던 미국의 악몽(惡夢)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민들의 성향과 저항정신 측면에서 볼 때 ‘베트남과 이라크는 역사적 자긍심, 종교 및 문화적 차이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고대역사에 대한 자부심, 서양인에 의한 식민지의 경험과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줄기찬 항쟁 등 베트남과 이라크 국민들의 역사적 저항정신은 특이했다.

아울러 불교 국가인 베트남과 이슬람 국가인 이라크는 종교와 문화적 측

면에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와 상이한 점이 너무 많다. 이에 따라 형성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역시 그 골이 매우 깊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외부의 지원과 작전 환경면에서 볼 때도 북베트남 및 공산권 국가들이 베트남을 지원했던 것처럼 이라크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원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또한 이라크에는 베트남과 같은 정글이 없지만, '주민들이 동조할 경우 주민들의 밀집지역이 게릴라의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전 환경 역시 베트남의 게릴라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라크의 상황이 베트남전쟁 상황과 다른 점도 있다.

첫째, 이라크 사태는 베트남전쟁과 같은 이념대결의 양상에 따라 국제적·구조적 대립상태가 아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대립상태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슬람국가들과 함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 강대국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전후(戰後) 정책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익(國益)만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미국과 협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둘째, 현재의 이라크에는 베트남의 호찌민(Ho Chi Minh)과 같이 신망 높은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다. 전쟁 중 또는 전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유능한 지도자의 존재와 향배에 따라 평화체제 구축과 반정부 활동 및 게릴라전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남베트남에서 결코 연합군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베트남 및 북베트남군이 최종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찌민과 같은 신망 높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자유진영에서는 호찌민을 공산주의자로 치부했지만, 남과 북의 베트남 주민들이 볼 때 호찌민은 오로지 베트남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농촌 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호찌민은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의 식민정권

과 대항해 싸우며,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또한 한계에 부딪혔던 항미(抗美)전쟁 기간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제안을 거절하고, 오로지 베트남인에 의한 자주적 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부정이라는 단어조차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청렴한 정치인이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현대식 장비로 무장된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물리치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호찌민과 같은 유능한 지도자가 국민들의 단결된 힘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이라크는 호찌민과 같이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지도자가 없다. 현재까지는 가장 가까운 인물로 후세인(Saddam Hussein)을 들 수 있으나, 재임기간 중 독재와 탄압 등 약점(弱點)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코 국민들의 구심점(求心點)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갑자기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과도한 통제가 계속될 경우, 또는 친미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하는 지도자를 옹립할 경우 등과 같이 이라크 주민의 뜻에 반(反)하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셋별과 같이 나타나는 ‘게릴라 지도자’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반미(反美)를 기치(旗幟)로 하는 이라크 민족적 지도자가 출현하기 전에 동티모르의 ‘구스마오(Gusmao Xanana)<sup>47)</sup>와 같은 지도자를 내세워 이라크 민주정부를 구성한다면, 현재의 혼란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용이하게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47)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이자 정치인으로 예수교 신학교에서 교육받았다. 1975년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를 강제점령하자, 곧바로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을 조직하고,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1981년 동티모르 민족해방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되어 무장투쟁을 계속하던 중 1992년 동티모르 수도 딜리(Dili)에서 체포되어 연금됐다. 석방된 뒤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1999년 8월,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동티모르 독립을 묻는 투표에서 독립이 결정되면서 7년 만에 귀환, 동티모르민족 저항평의회(CNRT) 의장을 맡아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해왔다. 2002년 4월, 치러진 동티모르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두산 세계백과사전

## (2) 파병의 명분구축

동서고금을 통해 불후의 명저(名著)라고 할 수 있는 손자병법의 첫 구절은 “兵者國之大事(병자국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로 시작된다.<sup>48)</sup> 손자(孫子)의 지적과 같이 전쟁이야말로 국가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전쟁에 관한 어떠한 결정보다 신중하고, 면밀하게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결정에 무조건 복종했던 고대(古代) 전쟁과 달리 현대전(現代戰)은 국민의 여론이 결정적 변수가 되며, 자국(自國)뿐만 아니라 세계 여론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강대국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전쟁이 시작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적절한 전쟁의 명분도 자연스럽게 주어지거나, 적당히 잊혀져 가는, 일반적인 사례가 현대전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최근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쟁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라크전쟁을 감행했던 미국의 명분은 자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사건’의 후속조치 개념으로,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후세인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한다”는 것이었다.<sup>49)</sup> 그러나 미국이 제시했던 전쟁의 명분은 증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오늘날 까지도 합당한 명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전쟁 명분에 관한 문제는 이라크에 다국적군 개입을 승인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의 추가파병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

48) 정비석·한무희 공편, 『손자병법』, 고려원, 1990, p. 15.

49) 합동참모본부, 『이라크전쟁 종합분석』, 2003, p. 25.

이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사례와 한국군 추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한 이라크는 물론 어떤 지역의 파병에도 전쟁의 명분은 파병의 거부(可否) 결정과 함께 파병부대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까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병은 전쟁의 명분과 함께 파병의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대의 해외 파병은 전쟁의 명분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지만, 주권국가의 해외파병은 자국의 이익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병에 관한한 모두가 공통적인 명분을 가질 수는 없으며,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명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파병의 명분은 전쟁의 명분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각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한다면, 다른 명분이 도출될 수 있다. 국내용 명분과 대외용 명분으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며, 국가이익(國家利益)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용과 대외용 명분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의 경우도 국내적으로 보면 “한·미 안보동맹을 굳건히 하고, 이라크 전후복구 및 중동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며,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군사작전의 경험을 축적하고, 현대전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 및 전략 구사를 위한 경험을 획득한다”는 등의 명분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이라크 현지 및 대외적 명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군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병되는 것이며, 유엔의 결의가 없었다면, 결코 파병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한국군은 점령군의 입장에서 전투를 위해 파병된 것이 아니며, 이라크의 우방으로 이라크 주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며, 진정한 민족국가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파병된 평화유지군이다.

셋째,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된 것이 아니며, 한국

의 이익과 이라크의 이익, 그리고 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넷째, 한국도 이라크와 같은 역사적 고난을 겪었다. 900여 회에 달하는 열강의 침략과 36년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배, 그리고 이념대결에 의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입장에서 이라크의 사정을 이해한다.

다섯째, 한국군의 파병은 국내에서 파병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파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 있다.

### (3) 미군과 차별화된 작전 구사

이라크에서 미국을 제외한 나라의 다국적군(多國籍軍)과는 달리 미군들은 연일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라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군이 후세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려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것은 당장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군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혼란과 파괴, 실직과 생활고 등 고통을 몰고 온 점령군(占領軍)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역사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외세에 대한 배타적 감정과 종교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결코 미군을 환영할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고 미군이 이라크 주민들의 생활고를 즉각 해결해 줄 형편도 못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라크 주민들이 미군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악역(惡役)을 미군이 담당한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한·미 안보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한·미 안보동맹이 한국군 파병의 배경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라크에서까지 이 같은 사정을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파병된 한국군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의

군대와는 모든 면에서 차별화된 작전을 구사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첫째, 점령군으로 간주되고 있는 미군과 달리 이라크의 진정한 민족국가(民族國家)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 파병된 사실을 주시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군은 미군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평정과 치안 유지를 위한 수단은 무력에 의한 작전활동보다는 주민을 이해시키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선무활동 및 민사작전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군은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며, 특히 성희롱 등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을 엄금해야 한다.

#### (4) 현지 주민들과 우호증진을 위한 노력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국군의 사명을 들추지 않더라도 국내 및 해외에 파병되는 군대를 막론하고, 현지 주민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에 파병되는 군대는 국내에서 경험했던 것과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의 신망을 얻는 민사작전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피아의 군대가 맞서는 정규전 상황하에서 민사작전은 무력에 의한 작전의 후속조치로 여겨질 수 있으나, 피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비정규전 상황하에서 민사작전은 오히려 무력에 의한 작전보다 중요성이 배가(倍加)됨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라크의 경우가 그렇다. 공식적으로 이라크는 종전이 선포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라크는 전쟁터가 아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적이 아니며, 파병되는 군대가 도와주어야 할 우방국의 주민일 따

름이다. 따라서 경계심을 갖고 소수의 적대세력을 분리시켜야 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 전체를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라크의 문화와 풍속, 종교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이라크인들의 자존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금해야 한다. 특히 종교에 관한 비판, 여성문제 등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 유지 및 지도력 있는 인사를 포섭하고, 적극 활용해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현지의 과도 행정기구, 경찰조직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다. 가급적 한국군이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지 경찰, 또는 지도력 있는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라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민지원을 적극 활용하되, 이라크 지도층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이라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 이라크 군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요원들의 일 자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선무하며, 이들을 적극 활용해 게릴라화할 수 있는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이 같은 활동을 위해서는 파병병력 구성시 현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편성시키고(소대단위 1명 이상), 필요시 현지 통역요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 (5) 한국군 자체의 작전성과 평가기준 정립

작전활동에 임하는 군대는 작전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활동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군대의 '작전성과 평가기준'은 각개 부대 및 장병의 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전쟁시 주월 한국군의 작전성과 평가기준은 전쟁이 게릴라전 양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적을 사살한 전과에 두지 않고, 노획된 소총의 숫자, 수색정찰 및 매복의 횟수 등에 근거했다.

정규전의 평가기준과는 다른 척도였으며, 게릴라전의 성격을 고려해 진

일보(進一步)한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주월 한국군의 작전은 효율적인 민사작전과 선무심리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수행했으며, 효과적인 평정작전으로 연결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평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소총을 노획하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전개해 아군피해를 유발한 사례와 대민피해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베트남전쟁의 교훈과 함께 ‘이라크는 전쟁지역이 아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한국군의 작전성과 평가기준은 각 부대별 지역의 안정도 구축 여부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활동 중점은 작전활동보다는 민사작전 및 대민 선무활동에 두어야 할 것이다.

## 5. 결 론

베트남전쟁 이전까지 국군이 경험했던 전쟁수행 방식은 대부분 무력으로 적군을 격멸한 다음 민사작전 및 활동을 통해 점령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순서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작전은 군사작전에 의한 승리의 마무리 단계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게릴라전 양상의 베트남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투입해 단시간에 남베트남에서 적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미국의 전략이 무참히 무너지면서부터 게릴라전 상황하에서 민사작전 및 심리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게릴라전 상황하에서 민사작전 및 심리전은 과거 전쟁사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전쟁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군사작전의 보조수단으로부터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수단으로 격상되었다. 전선없는 전쟁의 양상을 지니고 있던 베트남의 게릴라전 상황하에서는 적이 양민일 수도 있고, 또 양민이 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과

병행하여 민사작전 및 심리전 위주의 작전이 수행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즉 남베트남군과 연합군은 지역사회에 대한 적의 접근을 차단하고, 적과 양민을 분리하기 위한 대민지원과 심리전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주민의 전폭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더욱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작전은 정규전 개념의 연장으로 무력 위주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남베트남의 자연적 제한사항과 베트공의 저항의지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물량위주의 작전을 거듭할수록 적대적인 남베트남 주민을 양산(量産)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군사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결과 북베트남 및 베트공의 저항의지에 내성(耐性)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자국으로부터는 전쟁 반대에 휘말려 국력을 결집하지 못했다. 이 같은 모든 결과가 민사작전 및 심리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승리를 결정지으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50)</sup>

한편 베트남전쟁의 전 과정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남베트남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 군사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남베트남 정부가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는 최초부터 태생(胎生)적 한계를 안고 출범한 사실, 계속되는 쿠데타로 인한 정치정세의 불안정, 정부고위 관리와 군의 부패, 자국의 안보를 지나치게 외국 군대에 의존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남베트남 정부의 한계로 인해 주월 미군과 한국군이 빛나는 전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전세를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남베트남은 주월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한 후 불과 2년 만에 패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1/10 정도가 파병된 한국군이 “남베트남의 풍속과

50) William C. Westmoreland(최종기 역), 『왜 월남은 패망했는가』, 광명출판사, 1976, pp. 130~131.

문화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민사작전과 심리전을 전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작전성과를 극대화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라크 추가 파병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교훈을 보다 깊이 성찰하고, 연구해 차후 해외 파병의 교훈적 사례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병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내 및 대외에 파병의 합당한 명분을 제시해 이해를 구해야 하며, 악역(惡役)을 담당하는 점령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파병지역의 주민과 민족을 돕기 위해 파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의 종교 및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주민들과 우호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파병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임무를 고려한 유형적인 전과(戰果)보다는 지역의 안정도에 두는 평가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병부대를 편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부터 과거 파병사례와 교훈을 적극 활용해 게릴라전 및 전후처리 과정에서 민사작전 및 선무 심리전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03. 11. 3, 심사완료일 : 2003. 11. 20)

주제어 : 베트남전쟁, 게릴라전, 민사작전, 파병, 이라크

<ABSTRACT>

## ROK Force's Civil Operation in the Vietnam War and Lessons Gained from Dispatch Troops Overseas

Choi, Yong-Ho

Before the Vietnam war, a procedure ROK force generally carried out was to just destroy the enemy with military power, and then bring a peace to a zone of military occupation through civil operation and activity. With this process, civil operation is considered as a final stage which brings victory.

However, after US force strategy "committing supreme military force to suppress enemy resistance at the South Vietnam within a short time in order to establish liberal democratic nation" was tragically collapsed, an importance of the civil operation and a psychological warfare was newly recognized under the guerilla warfare condition.

As a result, they became critical war strategy, which never happened before in the history of a war, under the guerilla warfare condition. In the past, a civil operation and a psychological warfare were just considered as a military operation supplement, but they became critical strategy which decided the issue of a battle. Vietnam war had no battle line under the guerilla warfare condition. The enemy can be good people, and good people can be the enemy. Because of that reason, civil oper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should be done primarily with military operation.

Therefore, South Vietnam force and combined force had to cut off the enemy access to the regional society, and carried out a community service activity and a psychological warfare for the separation between enemy and

good people which increased regional society welfare. The purpose of this procedure was to establish full scale inhabitants' cooperation toward its government.

However, US force and the others, included in the combined forces' operation, did armed force-centered operation as a regular warfare extension. As a result, they couldn't overcome natural condition in Vietnam and Vietcong resistance, when they repeated material based war. It produced hostile South Vietnamese. Also, as a military force is used politically, it occurred North Vietnam and Vietcong resistance to raise tolerance. Also, US could not gather the national power caused by the war opponents. Because US intended to decide victory with armed forces, they could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 civil operation and a psychological warfare.

South Vietnam government role didn't acquire trust of the people through overall process, and couldn't be replaced by any military forces. There were many reasons why the South Vietnam government didn't receive a trust from the people. First, there was a limitation ever since the government started. Second, there was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by the continued military coup. Also, the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high ranking officers were spoiled. They overly depended on foreign force for the homeland security as well.

South Vietnam government with these handicaps, even though US and ROK forces in Vietnam acquired brilliant war result, could not change war situation. At last, it started to collapse in 2 years after US and ROK forces' withdrawal.

With this process, ROK force, size about 1/10 of US one, could gather national interest and maximized operational result while minimized the damage through a civil operation and a psychological warfare with understanding of Vietnam's customs and cultures. These facts should be highly evaluated. These valuable lessons that we learned through troop

dispatch toward Vietnam should be investigated and researched deeply, so it can be used for our future. For example, like these days particularly, because we are discussing additional force dispatch to Iraq.

In order to do that, the region's particular situation analysis to dispatch troop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acquire understanding by suggesting rational cause of dispatch toward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lso it is important to be recognized as we dispatched for the aid of the inhabitants by showing them a differentiated strategy than the one who takes a villain's part.

The effort is needed to understand and respect inhabitants' religion, culture and customs. So it can build the friendship with them. The criteria to evaluate a result also should consider more on stability that our forces brought than tangible war result.

In order to accomplish all that, it is necessary to teach, using past dispatch troop case and lesson, massively on the importance of a civil operation and a psychological warfare in a guerilla warfare situation to the dispatch troop unit.

Key Words : Vietnam war, guerilla war, civil operation, dispatch troop, Iraq